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아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아름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전력 끌어쓰기에 달려있어

(485호에 이어서)

그러니 정진하실 때도 그렇고, 어느 분이든지 상대를 놓고 빌거나 상대를 놓고 기도하거나 또 내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가슴을 짚어 보아서) 자기가 있어가지고 "해주시오" 하고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거기다가 "해주시오" 하면 그것도 또 안 됩니다. 그대로 믿고 "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마음으로 굴러서 다시 놓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됐다" 하기 이전에 벌써 그냥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고,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했습니다. 관세음! 관해서 보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고 관세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거지 이름을 부르고 찾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말하자면 네가 (손가락으로 정면을 가리키시며) 즉 관세음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말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동하고 보고 듣고, 그리고 들이고 내고, 이게 모두 네가 보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를 딱 드잡아서 자기로 볼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다 관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달아서 완벽하게 됐다 하면, 지팡이가 완전히 썩다 하면 이 몸속에 들어있는 의식도 그게 전부 업식인데, 업식이 한데 합쳐져서 그냥 큰 에너지영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력입니다.

여러분이 날더러 항상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허,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말해봤자야 어떤 때는 소용이 없이 될 때가 있어요. 금방 말하고 돌아섰는데 금방 행동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말로는 전부 안다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기가 어렵다 이 소립니다. 행동이 그렇게 왜야 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화복하고 즐겁고 좀 색다르게 빛나게 살려면 행동부터 진실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잘못했든지 잘못했든지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하고 부딪치기도 하지." 하고 내 뜻으로 돌려야지 남의 뜻으로 전전긍긍하고 남의 뜻으로 원망하고 남의 뜻으로 증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자기가 인연에 따라서 낳았는데, 자식이 잘못하면 "자놈의 세기가 누굴 닮아서 저러냐? 제 애비를 닮아서 저렇지!" 또 아버지는 "제 애미를 닮아서 저렇지!" 이렇게 하나간다면 그것은 자식의 뿌리를 복돋아주는 게 아니라 아주 싸을 망쳐놓는 겁니다. 부부기간도 그렇거니와 부모자식기간도 그렇고 모두가, 위로는 묵은 빛을 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진실하게 가져야 하고, 아래로는 내가 햇빛을 주는 것이 바로 뿌리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햇빛을 주게끔 심력을 길러야 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지금 배움에 따라서 종교를 진짜로 실천해나가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남편이 잘되게 빈다 자식이 잘되게 빈다 하고서 산기도를 백일을 한다. 천 번을 절을 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 것이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항상 그러죠. 천 번 절한 것도 바로 일정에 속한다. 마음에 항상 끌어지지 않게 전력을 다해서 진실로 돌 아니게 한다던, 만 번 하

는 것보다 일 배 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이랬죠. 그런데 그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들을 다 그냥 정신적으로 배고프게 만들어놓고 기도 간담시고 멀치 뭐 이런 것도 다 안 먹이고 고기도 한 칼 안 먹이면서 "백 일 동안은 먹지 마시다." 하고서 다 안 먹이고선 기도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게 어였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였습니까? 백일이 일 초가 될 수 있어요. 일 초! 일 초가 모르면 백일이고, 백일이 만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 한 생각을 잘 하면 한 찰나에 일어설 것이고, 잘못발이 두 다리를 다 찾을 것이고 한생각을 잘못하면 두 다리가 다 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좀 보세요. 경전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켜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관세음이라고 그런 게 지켜보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 만물 돌아가는 거를 다 지켜봐라 이거거든요. 관(觀)! 그래서 못 아닌 도리에서 본다면 모두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너무 한 그루도 그냥 있지 않아요. 내가 산으로 다닐 때도 보면 어떤 거는 목신(木神)이 인사를 해요. 그렇게 반가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목신처럼, 세상에 이리 바람이 불고 저리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 바람이 치고 이래도 나중에 가을이 되어 잎이 단풍이 들어서 다 떨어지고 양랑한 가지만 남아도 말이 없어요. 말없이 그냥 움쭉거리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인내 있게 걸어가고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배움을 주는 겁니다. 그 나무 한 그루가 양당한 가지만 남아서 불블 떨면서도 인내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생명이 그 뿌리를 지키면서 날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해주시던 안니까? 돌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 네들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 스승이 안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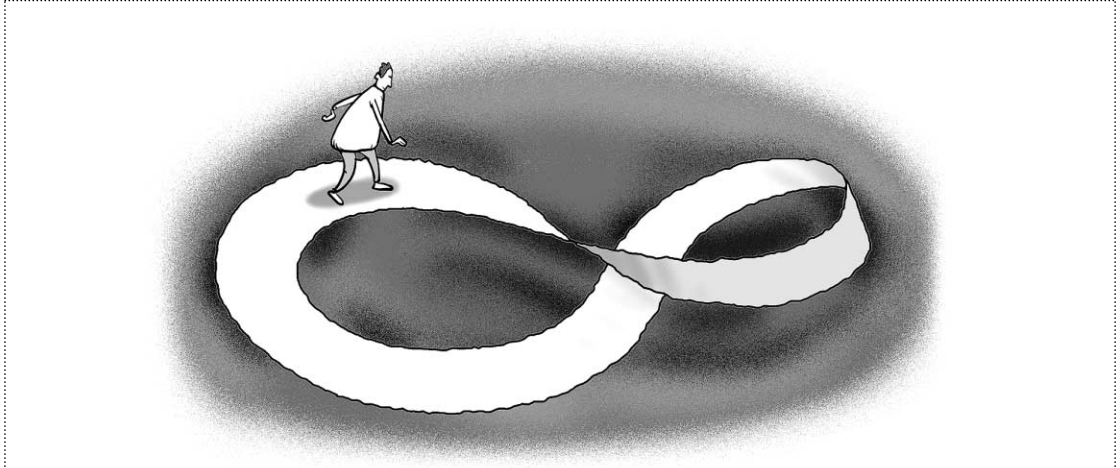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까? 조상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죽은 영혼이 이렇게 다가와도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대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오면 그것이 들어오게끔 거기다가 모두 돌 아니게, 즉 말하자면 자식이 이렇게 있으면 최 부스르기가 붙어서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데, 그냥 자식에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말이 없죠. 그런데 요거는 요것대로 자꾸 가깝게 와가지고 불으려고 하는데 자꾸 때어버리니까 자꾸 와서 불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자식이나가. 그러니까 불으려고 하는 힘과 끌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냥 자꾸자꾸 때어버리려고 하고 불으려고 하고 때어버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환난이 일어나는 거

야버린다. 하나가, 한 덩어리가 돼버린다. 그러니 이렇게 다가와도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대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오면 그것이 들어오게끔 거기다가 모두 돌 아니게, 즉 말하자면 자식이 이렇게 있으면 최 부스르기가 붙어서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데, 그냥 자식에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말이 없죠. 그런데 요거는 요것대로 자꾸 가깝게 와가지고 불으려고 하는데 자꾸 때어버리니까 자꾸 와서 불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자식이나가. 그러니까 불으려고 하는 힘과 끌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냥 자꾸자꾸 때어버리려고 하고 불으려고 하고 때어버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환난이 일어나는 거

를 하나 켜놓고, 돌 하나 떠놓고 생수 떠놓고, 딱 한 조각이라도, 찹쌀떡이라도 하나 놓고 딱 앉아서 그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두가 돌 아닌 자리에 함께 하소서.' 하고 그냥 하면 그것이 제사라고, 그리고 "오늘 어르신네 기제가 있어서 이렇게 음식을 조금 사왔느니라. 이것들 모두 먹어라." 이라고 먹이는 것이 바로 그 어른을 대접하는 거라고! 응?

내가 항상 그런 얘기 잘하죠. 작년에 수박을 심어서 수박씨가 그 속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그 수박씨를 또 심었어요. 그래서 또 수박이 열렸어요. 그랬는데 작년 수박씨 다르고 올 수박씨 다름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한테 기제를 지낼 때는 그렇게 간소하게 불을 켜놓고 그렇게 해도 그게 마음의 불을 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선 음식을 조금, 식구들이 잘 먹는 걸 사다가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하면 그 씨가 그 씨요 그 씨가 그 씨니까, 바뀐 거뿐이니까. 아, 그거 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위의 묵은 빛을 갈을 수 있고 햇빛도 또 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저렇게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깐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고려장 지낼 때 지계를 도로 지고 가서 "왜 가지고 가느냐" 하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해서 고만 자기 어머니를 도로 업고 갔더라는 셈으로 말입니다. 이거는 은연중에 그 자식들이 그냥 본받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헤가 없어서 이 텅무멍을 통해서 그냥 수없이 나갔다 수없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시죠. 약하게 마음을 갖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믿게 생각을 한다. 저것을 증오한다 이런면 벌써 이게 마음이 말입니다. 텅무멍을 통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증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텅무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참, 돌이 아니네 너도 돌이 아니게 여기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을 때는 바로 거기도 밝게 불이 들어와서 '아, 모든 게 잘못된 것도 내 잘못이구나!' 하고서 후회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면서 이렇게 잘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아이구 형님,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탓이야!" 하면서 회개를 할 수가 있죠. 형님뿐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이 의집을 하고 안 다니는 집들도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모두 등이 젖어 하고 원망을 해야 하고 증오를 해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종교를 진실히 믿는다면 어디 국한돼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림하고 살아나가는 이 진리가 그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촛농이 이리저리 흐르지 않도록 초 심지를 다스리면서 잘 해보십시오.

오늘 질문 들었습니다. '뭘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말을 하고 있어.' 이리저리 마세요. 별것도 아닌 데서부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림하는 게, 내 몸과 자식들과 부모와 부부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지금 시급한 일입니까?

22면으로 계속

종교는 어디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림하고 살아나가는 이 진리 그대로

보. 이게 한마디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느 거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영성적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다 그런 형국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림하면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항상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붙지 못하게 '너는 죽어야 해, 너는 때어버려야 돼, 너는 여기 없어야 돼.' 이리하고 만날 때어버리려고들 드니까 그냥 한시가 바쁘게 일이 생기죠. 만날 바쁘고 만날 괴롭고! 이뿐만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게 유전성이라는 건 또 오죠. 그러니까 병고가 오든 애고(哀苦)가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그 모든 걸 되돌려 뇌라. 거기다 놓으면, 불에다가 불을 넣으면 그냥 하나가 돼버린다. 불덩어리예다가 그냥 놓으면 옹공로에 넣듯이 그냥 녹

조. 이게 한마디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느 거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영성적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다 그런 형국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림하면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항상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붙지 못하게 '너는 죽어야 해, 너는 때어버려야 돼, 너는 여기 없어야 돼.' 이리하고 만날 때어버리려고들 드니까 그냥 한시가 바쁘게 일이 생기죠. 만날 바쁘고 만날 괴롭고! 이뿐만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게 유전성이라는 건 또 오죠. 그러니까 병고가 오든 애고(哀苦)가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그 모든 걸 되돌려 뇌라. 거기다 놓으면, 불에다가 불을 넣으면 그냥 하나가 돼버린다. 불덩어리예다가 그냥 놓으면 옹공로에 넣듯이 그냥 녹

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항상 그런 말 잘하죠. 저 지구가 비스라면 비스 안에서 웅기종기, 네 가니 내 가니 내 종교니 네 종교니 내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고 싸우고 싸고 온통 그냥 혼란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사는 거라고 그러곤 살고 있거든요. 그게 사는 겁니까, 어디? 수라장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오신통(五神通), 본다 들는다 남의 마음을 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가고 옴이 없이도 가고 오고 한다, 이러더라도 그것은 도가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싸워 내야 된다고 이런 겁니다. 싸 벗어나서, 아예 다 내려보고 모두가 다 그저 사대(四大)를 흡수하면서 같이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여려니라.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면 여려일 것이고, 여여치 못하면 증생일 것입니다.

또 오늘도 말을 하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말한 게 여러분과 나와 돌 아니게 된다는 것이 왜냐면 이 친구가 (천정의 친구를 가리키시며) 주욱 이렇게 있죠? 너 나가 이렇게 모습은 다 달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전력은 다 똑같다는 얘기 만날 하죠? 그러니까 돌 아닌 까닭에 우리가 말을 해도, 이것이 내 말이다 네 말이다 하지 말고 바로 나한테 있는 사실이고, 바로 내가 지금 그렇게 듣고 있고 내가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번 다스려나가면서 믿어보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 믿는 사람 가톨릭교 믿는 사람은 조상들의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런 있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견 의리도 도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응? 자기를 낳아서 길러서 사회에 나가니까지 그렇게 해주었는데, 그 의리로 봐도 그렇고 도의로 봐도 그렇고, 아, 어떻게 그럴까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함 켜놓고, 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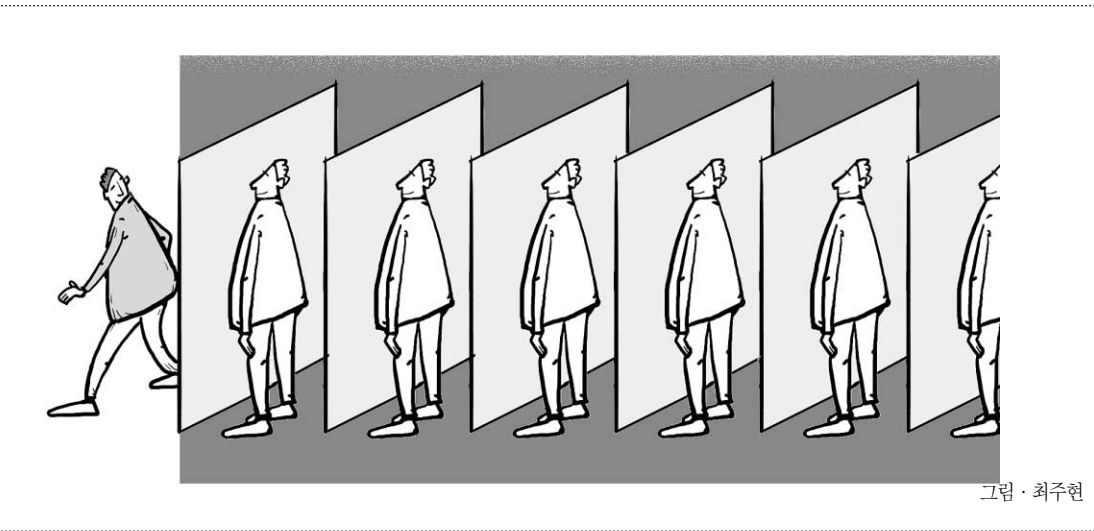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없드러진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

21면에서 계속

▲질문자1(남): 오늘 설법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동안 의문점이 많아서 질문을 좀 많이 드려려고 했습니다. 오늘 설법을 통해서 깨달음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를 몇십 년을 신봉하다가 스님께서 '우리 믿음은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매료되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약간의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설법을 통해서 완전히 믿음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소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을 믿는데,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과의 구별이 어떠한지 좀 알고 싶고, 아울러서 오늘 설법에서도 대중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인공도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크스님: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하나의 '님'입니다. 자기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찾아라, 하나! 하나의 자기부터 세워라.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아시며) 지팡이를 세워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의에 있다고 생각하고를 찾는 것은 모두 편집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성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나갈 리가 없죠. 예수님도 "나를 믿어라." 그랬지 언제 '타의의 모든 것을 믿어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으라 한 것은 그때 그 시절에 그들은 '모두 각자 나를 믿어라.' 했던 건데 모두 모르고 '자기를 믿어라.' 이러니까 모두 한군데로 몰려서 '예수를 믿으셨다.' 이렇게 아마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잘 반성하고 고쳐나가면서 이루어야 우리 지구도 성공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맑은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그림자가 비추듯이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할 때 불심이 생긴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을 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인지 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도 주인공을 찾을 때 주인공이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 청정한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 주인공과 접할 수 있는 건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크스님: 하하하, 이 안에는 자기 자신의 그 업식들, 수십억 개의 의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목욕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잘못되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 업식 때문에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을

잘 가계 하기 위해서,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기를 찰나. 자기 업식들이, 즉 말하자면 이 공부할 하다보면 자기가 즉 신장(神將)이 됩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렇게 잘못할 때는 신장이 되고 잘못 때는 보살이 되고 또 잘못 때는 부처가 되고 법신이 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신장이 될 수밖에. 신장이 돼서 자기가 자기를 찰나.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도 그냥 탁 치니까 넘어져서 잘못 다치기도 하고 이러는 수가 많죠. 그런데 본인은 그거를 모릅니다.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할 텐데 '아하, 이거 타의에 고답해서 이렇게구나.' 하는 거를 발작 깨우쳐서, 잘못하고 가는구나 하는 거를 다시 가다듬어서 그 누적이 된 거는 잘라버리면서 똑바로, 아까 초심지 잘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이게 빨리 수습이 되는데, 그

렇지 않고선 그냥 '아이고, 이런 내 팔자야. 이게 이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자기 잘못하는 건 속 빼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팔자야? 왜 이런 게 와?' 이러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업은 두터워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공부를 하다보면, 잘못 했으면 자기가 자기를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가 치고 누가 나쁘게 해서 치고 때리고 또 좋게 주고 이러는 게 없습니다. 누가 갖다주고 뺏어가고, 잘못했다고 때리고 잘했다고 상 주고 이러는 게 없습니다.

▲질문자1(남):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가도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크게 의치고 찾으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 그 믿음이 다시 소생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믿음을 다시 돈독히 하

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요? 또한 아울러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좀 가르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크스님: 하이, 여지껏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거, 나는 아주 이를 자체도 없고 싶다고요. 관(觀)이지! 자기를 자기가 관하는 거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해서 그 신심이 돌구어진다는 건 공덕이 아니라 없는 것이다. 이런 건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고 남을 이익하게 할 수도 없고 나를 이익하게 할 수도 없는 경우다 이겁니다. 그런 걸 오신통에 대해 이런 말이 있죠. 다른 거를 다알아도 도가 아니다.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고, 생수를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어야 이게 도다. 이게 누진(漏進)이다 이렇게 말한 거와 같습니다.

▲질문자1(남): 초심자이기 때문에 질문의 차원이 좀 낮았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웃음)

▲크스님: 이것은 관(觀)하는 데, 관하는 데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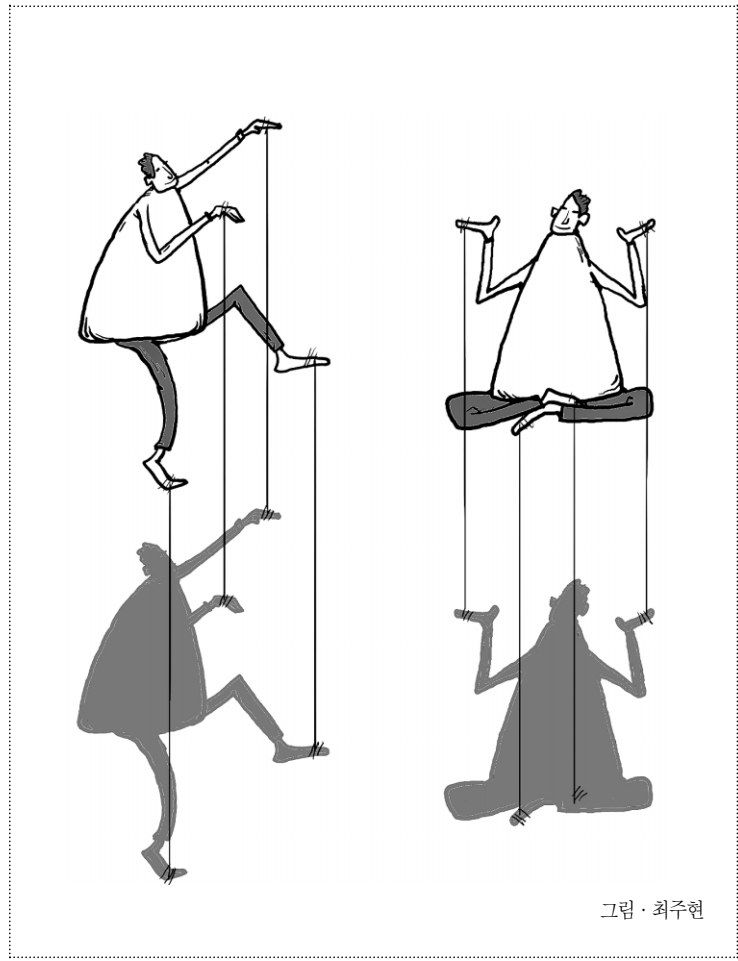
▲질문자3(여): 예. 물어보지도 안 하고 주인공 자리에 맡기고 일이 잘 돌아가거든요.

▲크스님: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3(여):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4(여):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우리 딸인데요. 어찌된 건지 남이 좋아라 하는 것도 모르고 나쁘다 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의욕심도 없고 어디서 병이 났는지 식구들 자체도 몰라요. 왜 이렇게요? 병의 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참 너무 답답해서 먼저 울산 오실 때도 제가 질문 한번 해봤는데...!

▲크스님: 이거 보세요. 이 업식의 관계라는 것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에 나오는 것이, 알고 짓는 거는 알고 받게 돼 있고 모르고 지은 것은 모르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입력됐



자기가 자기를 관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상대를 놓고 하는 기도는 이익도 공덕도 없어

▲크스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잘 말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또 생각할 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으니까요.

▲질문자2(여): 스님! (웃음을 터트림)

▲크스님: 그냥 우는 걸로 전말을 했으면 그냥 우는 걸로 받아주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주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오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틀어 아니게끔만 하십시오. 틀어 아니게 거기다 맡겨 놓는 그 작업을 항상 하시고 본인도 그렇게 하셔야 하고, 또 현실에 막는 그 음식도 잘 조절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질문자3(여):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이 육신의 한쪽 다리를 못 쓰셨어요. 아직까지 아파서 고 통받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리가 요새 아파가지고 부엌에 빠졌더라고요.

▲크스님: 저 내려가셔서 주지스님한테요. 관(觀)하는 도리를 잘 알아가지고 가세요. 그 관하는 거를 똑바로 잘 하시면 내 몸통이 속에서 모든 생명들이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3(여): 예.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고 한 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형님 놔두고 결혼하는데... 죄송합니다.

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모든 것을 관하는 데 열정을 다해서 거기 되풀이해 놓도록 하시면, 즉 입력됐던 것에 퇴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는 반면에 그것이 소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하는 도리를 똑바로 잘 하고 믿고, 이게 믿는 데 있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낫든지 안 낫든지 믿는 거! 이것이 소생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낫는 것만 법이다. 주인공이 낫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인공에서 그대로, 어떤대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벌써 그 주인공으로 인해서, 그것도 이로부터 주인공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니까 그대로 믿고, 죽이는 것도 거기로 살리는 것도 거기로 잘못되는 것도 거기로 잘되는 것도 거기로, 모든 게 거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죠. 걸어가지고 앞드러지면 앞드러진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걸요.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 내 마음' 중에서 61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미음성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미음성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깨끗하게
파룬궁 무료전수안내

물질적으로는 충족하고 삶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도덕적 정신적인 면에서는 타락과 지체가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최첨단 물질문명속에서 정신 없이 바쁜 현대인들, 파룬궁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수련방법으로서 아무런 댓가없이 당신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性(미음)을 닦는 방법으로는 심성계고를 위하여 책 轉法輪을 읽으면서 생활속에서 모든 집착심을 제거하여 우주의 특성(본질)에 동화됨을 최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命(몸)을 닦는 방법으로는 5장공법을 연마하며 본공법을 연마시 아주 강대한 功力이 나와 몸이 정화됨이 아주빨라 각종질병 치료에 탁월하고 의도적으로 호흡을 이끌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단전에 기를 모으지 않습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책, 연공동작 비디오 테이프 무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10-3075-1534
www.falundafa.or.kr

당 하 당 뇨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당뇨와 미네랄이 만났을때"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높리우
▶ 원재료 : 갈근, 치자, 대계, 계피, 감초, 갈삼, 갈복
▶ 혈행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하당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참고
하당을 15-2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하당도 3개월부터는 1일 3회에서 1일 2회로 줄여 드시며 6개월 안에는 정상으로 됩니다.
단, 이때부터는 가벼운 운동과 식이요법을 더욱 신경써야 됩니다.

- 이온성 알칼리 미네랄 복합체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대사성질환(당뇨, 고혈압, 경년기증후군, 류마티스, 신장병, 간염, 간경화, 기관지염, 신경쇠약, 폐대장,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쇠약, 동맥경화, 뇌혈관질환, 어드름, 건선, 백반증, 배탈병, 비만, 구강건조, 건조증, 심근병, 빈혈 등) 한방의 처방전과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극대화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상인당 특관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관절염에 “글루코사민사카트리지”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A등급 제품으로 선정

글루코사민 사카트리지란?

- 미국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관절염약제
- 관절치료제인 기존의 글루코사민보다 효능을 높이기 위해 상어연골, 칼슘, 비타민, 아연, 망간 등 관절과 연골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한 복합제
-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상결과 그 우수한 효능을 표 -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도 인정
- 연골의 파괴 효소를 막고 연골을 생성 촉진하는 제제

= 복용 시 =

- 2~3주후면 효과발현 시작
- 4~8주면 30~50% 오면 단계
- 6개월이면 90%이상이 만족

* 글루코사민은 1일 1500mg을 6주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 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복용량은 몸무게에 맞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고시(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지(원산지) : 미국 수입 원제품
* 신용카드 구매 가능

상담문의 : 080-631-4525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74번지 세종빌관 3층 서부통상